

國文學에 끼친 實學思想의 影響에 대한 一考

朴 奎 洪

〈目 次〉

- | | |
|-----------------|-----------------------|
| I. 問題의 提起 | Ⅲ. 朝鮮後期 國文學과 實學者들의 文學 |
| Ⅱ. 時代的 背景과 實學思想 | 1. 朝鮮後期の 國文學 |
| 1. 時代的 背景 | 2. 實學者들의 文學 |
| 2. 朝鮮後期の 實學 | Ⅳ. 結 論 |

I. 問題의 提起

朝鮮後期の 國文學이 實學思想의 影響을 입었다는 점은 별다른 異論 없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예가 된다.

漁村에 落照하고 水天이 一色인제
 小艇에 그들짓고 十里沙汀 내려가니
 滿江蘆荻에 霞鷺은 섰거날고
 桃花流水에 鰕魚는 살것는데
 柳橋邊에 배를매고 고기주고 술을사서
 酩酊케 醉한後에 오애聲 부르며 달을떠고 돌아오니
 아마도 江湖至樂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 얼마나 自然스러운 表現인가. 여기에 人間性은 露骨的으로 나타나 이제는 벌써 假飾조차 없어져서 우리는 참다운 人間을 對하였다. 近世의 實學의 精神은 可히 여기에 露出 되었다 할 수 있으니 누가 過去의 典型的인 時調를 자랑하였던가!

1)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求堂, 1974, 368면.

벗음갑이라 하놀노 날며 두지취라 썩 파고 돌아
금종다리 鐵網에 걸너 풀덕풀덕 프드덕인들 날다 날다 네 어드로 갈다
우리도 남의 남 거러두고 풀덕여 볼까 ㅎ노라(時全 1109)

이와 같은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 사상적 배경이 달라졌음을 뜻한다. 종래의 지배적인 지도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이 물러가고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서 등장한 實學思想의 문학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실학의 유입으로 인한 시조의 이러한 변모는 사회 구조의 변모에 따른 새로운 知覺 활동과 꼭 병행하는 현상이다.²⁾ (이상 방점 필자)

위의 두 引用文을 보면 文學作品에 나타난 “自然스러운 表現” “人間性的 露骨的인 披露” 혹은 고정된 形式이나 理念의 틀에 묶이지 않은 長時調의 발생이 實學思想의 영향 때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조선후기 국문학에 끼친 실학사상의 영향은 별다른 論據 없이도 여러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일정한 지역 일정한 시대 속에서 한 민족이 엮어내는 政治·經濟·文化 등 여러 요소가 서로 긴밀한 有機的 關係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조선후기 국문학과 조선후기에 발흥한 실학사상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학사상은 무엇이며, 문학작품에서 실학사상이 영향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이 兩者의 관계가 너무 막연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예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실학사상의 영향이란 것도 몇 가지 측면에서의 구실을 자아낸다. 江湖至樂을 노래한 그런 類의 자연스런 표현은 朝鮮前期에도 없지 않았고, 또 소위 長時調란 것도 그 출현을 조선후기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男女間 愛情의 노골적인 표현을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보는 것도 再考의 여지가 있다.

아름은 실학사상의 국문학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불투명한 논의가 적지

2) 朴喆熙, 辭說時調의 構造와 그 背景, 『古典詩歌論』(金學成·權斗煥 編), 새문社, 433면.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실학사상이나 국문학 모두를 誤導할 우려가 있다. 本稿에서는 이 兩者에 대한 誤解나 과장된 생각을 拂拭하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는데 焦點을 맞추어 조선후기의 時代的 背景과 國文學, 그리고 實學思想과 實學者들의 文學을 疎略하게나마 고찰하고자 한다.

Ⅱ. 時代的 背景과 實學思想

1. 時代的 背景

壬·丙 兩亂 이후 朝鮮王朝는 그 末期까지 여러가지 사회적 진통을 겪는다. 大小의 모반·반란사건이나 여러 獄事만을 보더라도 조선후기 사회의 혼란상을 짐작할 수 있다. 仁祖反正(1623) 이듬해에 李适의 亂이 일어나고, 丁卯胡亂(仁祖5;1627)이 일어난 그해와 그 이듬해에도 연이어 李仁居·柳孝立의 모반사건이 발생한다. 또, 仁祖 8년(1630)에는 楸島의 亂이 일어나고, 仁祖 14년(1636)에는 치욕의 丙子胡亂을 맞는다. 仁祖朝 末期에도 두 차례의 모반 사건이 더 일어난다.

이런 와중에서도 壬亂 전에 이미 불붙은 黨爭은 兩亂 후에 더욱 심화되어 流血의 黨獄이 되풀이 된다. 顯宗 卽位年(1660)에 일어난 西人·南人 사이의 치열한 禮訟, 肅宗時의 老·少 分黨, 英祖末의 時派·僻派 등의 黨爭은 다시 勢道政治로 이어지다가 조선은 마침내 外세에 허물어지고 마는데, 이 과정에서 숭한 獄事가 일어난다. 肅宗 6년(1680)에는 南人들이 대거 몰려나는 庚申大黜陟이 있었고, 이어 己巳換局(肅宗15;1689)·甲戌獄事(肅宗20;1694)가 일어난다. 그리고, 景宗 卽位年(1721)부터 이듬해에 걸쳐 있는 옥사가 辛壬獄事다.

한동안 누그러졌던 모반사건이 英祖 4년(1728)에 李麟佐 등에 의해 저질러지고, 尹志의 掛書事件(영조31;1755)이 발생하기도 한다. 西學과 天主教의 전래로 동요가 심했던 正祖朝에는 西學에 연루된 獄事(正祖9;1785)와 서학에 관련된 서책을 불사르는 일(正祖12;1788)이 있는 다음 辛亥邪獄(正祖15;1791)이 벌어진다. 純祖朝 이후에는 많은 사건들이 설새없이 일어난다.

辛酉邪獄(純祖1;1801), 洪景來의 亂(純祖11;1811), 梁濟海의 모반사건(純祖13;1813), 己亥邪獄(憲宗5;1839), 李遠德의 모반사건(憲宗10;1844)

등이 일어나고, 哲宗 11년(1860)에는 敦義門 掛書事件이 일어나는데, 같은 해에 崔濟愚가 東學을 창시한다.

晉州民亂(哲宗13;1862)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란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高宗 14년(1877) 혼련도감의 軍亂이나 壬午(高宗19;1882)의 軍亂 등 군란까지 일어난다. 그 와중에 丙寅洋擾(高宗3;1866) · 辛未洋擾(高宗7;1871) · 雲揚號사건(高宗12;1875) 등 외세의 도발이 이어지고, 國母가 弑害되는 甲申政變(高宗21;1884)이 일어난 10년 후(高宗31;1894) 東學革命의 발발을 기화로 본격적인 외세에 의한 國權喪失의 운명을 맞게 된다.

더우기 西學의 流入은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倭 · 胡에 의한 國難에서 兩班들의 無氣力함이 이미 드러난 데다 天文 · 曆數 · 醫藥 · 農 · 鑛 · 法律 · 歷史 · 地理 등 다방면에 걸친 西洋의 科學 · 技術이 들어오자 既得權層의 固着化된 價值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바닥난 國庫를 채우기 위하여 판매된 功名帖 · 僧帖 등은 이미 불신되고 있는 양반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켰고, 班常의 계급에 의해 유지되던 朝鮮王朝의 社會體制도 점차 붕괴되어갔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의 요인은 여러가지로 논의될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지 못한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집권층은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理念的 도구로 취한 성리학을 추상적 개념의 탁상공론으로 묶어 놓고 말았다. 한편, 人材登用의 主關門인 科擧의 시행이 紊亂해짐에 不正한 방법으로 벼슬을 산 貪官汚吏들은 苛斂誅求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官紀를 解弛시키는데, 피해해진 백성들로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전염병 · 가뭄 · 홍수 · 화재 · 도적들의 창궐 등 朝鮮後期の 實錄을 매년 메우고 있는 災害는 당시 백성들의 고통상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自省 혹은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필연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조선후기에 일어난 이 변혁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지배계층의 支配論理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抵抗意識이라는 측면에서 변혁의 움직임을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 이야기해야

할 것은 피지배계층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면서도 賤視되던 양반 庶孽들의 움직임이다. 이미 仁祖는 反正 2년후(1625)에 서얼들의 官界登用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을 것임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英祖 48년(1772)에 庶子들을 등용하라는 방침이 다시 나온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辛酉邪獄이 있던 純祖 元年(1801)에 庶孽疏通이 시행된 것도 서얼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그래서 純祖 23년(1823)에는 서얼의 임용을 요청하는 萬人疏가 올려지기도 한다. 이것은 賤視되는 계층에서의 身分差別에 대한 拒否의 한 樣態였다. 그외 중인들이나 그 밖의 피지배계층에서는 그들의 위상을 상승시키고자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을 양성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서얼들과 中人들이 委巷文學 및 詩歌文學을 주도하고, 광대와 같은 천민들이 판소리나 노골적인 양반풍자의 가면극을 흥성시켰음을 볼 때 당시 피지배계층의 의식과 國文學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지배계층 내에서의 변혁의 요구라고 하겠는데, 그 주역을 실학자들이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실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失勢한 南人系列의 經世致用學派든 벼슬살이를 했던 老論系列의 北學派든 권력의 핵심부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그들의 처지가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갖게 된 점은 천시되던 하층민들의 불만과 일맥을 상통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대한 무조건의 거부가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현실비판이었기에 피지배계층의 움직임과 동일시되기는 어렵다. 執權層에서도 實學精神에 입각한 개선 노력이라 할 수 있는 政治·軍事 制度의 改編, 大同法の 施行, 錢貨의 鑄造·通用 등을 시행했음을 볼 때, 같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라 할지라도 계층에 따른 접근방법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튼 庚申大黜陟과 甲戌獄事 이후 宦路에 복귀하지 못하고 還鄉하여 農村에 칩거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의 피폐한 생활상을 직접 목도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과 그 개혁의 방안을 방대한 저술로 제시한 經世致用學派나, 직접 燕行에 동행하거나 혹은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西洋의 學問이나 文化를 접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강한 批判意識을 갖게 된 北學派들은

조선후기의 실학을 주도한 주역들인데 그들이 국문학에 끼친 영향 역시 없을 수가 없다.

문제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계층별로의 반응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앙반들이 발흥시킨 실학이 국문학과 얼마만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양계층의 의식 저변에 공히 갖추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동질적 것으로 보거나, 실학이라는 범주 안에 한데 묶어버리는 데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고 해야할 것이다.

2. 朝鮮後期の 實學

조선후기의 新學風을 ‘實學’으로 부른 最初의 例를 崔南善의 ‘朝鮮歷史’(1931)로 보고 있는데,³⁾ 어떤 前提없이 ‘實學’이라고 하면 그 개념의 범주는 매우 넓다. 실학이란 그 시대의 사상이나 학문 경향이 말쑥화되어 부화하고 공허해지는 현상에 대하여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제시의 학풍을 일컫는 것이므로 韓·中·日에서 공히 ‘實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내용은 각 나라마다 또 시대에 따라 같지 않은 것이다.⁴⁾

우리나라의 경우, 實學이라는 명칭을 따져보면 麗末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益齊 李齊賢은 忠宣王이 敎學을 일으키는 데 대한 찬사의 글에서 “이제 전하께서 학교를 넓히고 庠序를 恭謹하여 六藝를 존중하고 五倫의 敎를 밝혀서 先王의 道를 闡明한다면 어느 누가 眞儒에 背反하여 佛敎를 따르고 實學을 버리고 章句를 익히리까, 장차 詩賦의 小技에 종사하는 士(彫蟲篆刻之士)들도 모두 經明行修의 士가 될 것”⁵⁾이라 한 바 있고, 鮮初 權近은 太宗에게 올린 科擧에 관한 上書文에서 “文科初場에 疑義를 罷하고 講論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詞章의 學을 답습하는 弊를 누르고 窮經實學의 士를 얻

3) 千寬字, 韓國實學思想史, 『韓國文化史大系Ⅵ』,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70, 993면.

4) 鄭玉子, 실학과 근대의식, 『한국사특강』, 1990, 179면.

5) “今殿下誠能廣學校 謹庠序 尊六藝 明五敎 以闡先生之道 孰有背眞儒而從釋子 捨實學而習章句 將見彫蟲篆刻之士 盡爲經明行修之士矣”(李齊賢, 『櫟翁稗說』), 韓祐勛, 李朝 ‘實學’의 概念에 對하여, 『震檀學報』 제19호(1958.5) 40면에서 재인용.

기 위한 것으로서, 진실로 令典이라 할 것”⁶⁾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의 實學이란 異論의 여지 없이 佛敎나 詞章에 대한 ‘性理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조선후기 국문학에의 영향을 운위하는 실학은 이미 부화한 空理空論에 빠져버린 性理學을 陽村이 주장한 바와 같은 窮經實學으로 되살려 名과 實을 부합시키자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새로운 환경은 그것만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한다. 즉, 조선후기의 실학이란 경화된 추상적 이론에 빠진 성리학을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풍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始發點을 어디에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星湖에게 영향을 준 礪溪가 栗谷(1536~1584)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해서 實學의 始發을 栗谷으로까지 올려잡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益齋나 陽村까지 거슬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범주는 자연히 經世致用에 힘쓴 礪溪·星湖·茶山 등의 학자들과 利用厚生 혹은 實事求是에 힘쓴 湛軒·燕巖·楚亭 혹은 秋史 등 흔히 실학자로 불려지는 학자들이 주력한 학문으로 한정될 수 있겠다.

經世致用に 치중한 학자들은 조선후기 실학의 제1기를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庚申大黜陟(1680)으로 실세한 남인들인데, 倭·胡의 외침으로 피폐된 농촌의 실상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의 전반적 개혁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礪溪 柳馨遠(1622~1673)에서 星湖 李瀼(1681~1763)·茶山 丁若鏞(1762~1836) 등으로 이어지는 經世致用學派는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방대한 저술로 남겼는데, 礪溪隨錄·星湖僊說과 一表二書 등이 그것이다. 반제의 限田論이나 성호의 均田論, 다산의 閭田論 등은 모두 耕者有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豪族들의 침탈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학파가 개혁의 방법으로 내세운 것은 이런 田論으로, 상공업이나 화폐경제에

6) “文科初場 罷疑義試講論 是抑詞章蹈襲之弊 務得窮經實學之士 是爲令典”(太宗實錄 卷十三 十三張 太宗七年三月戊寅條). 한우근, 앞의 논문 40면에서 재인용.

대한 관심은 회박했으므로 重農學派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利用厚生學派는 상공업에 대한 관심을 높게 표명하여 重商學派라고도 지칭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경제치용학과와는 달리 집권층인 老論 자체 내에서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소수의 사대부들이 주역을 담당했다. 이들은 淸의 앞선 문화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그들 주장의 바탕을 마련했기에 北學派로 불리기도 한다. 북학과 형성은 18세기초 宋時烈(1607~1689)의 직 제제자들인 노론 내에서 벌어진 湖洛論爭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송시열의 수제자인 權尚夏와 그의 제자인 韓元震이 중심이 된 충청도지방의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을 湖論이라 하는데, 사람의 본성인 人性과 물질의 본성인 物性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人物性異論’으로 기존의 華夷論의 사유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자는 이론이다. 역시 권상하의 제자인 李柬과 서울에서 벼슬살던 학자들인 李穡·金昌協·金昌翁이 중심이 된 洛論은 인성과 물성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人物性同論’으로서 화이론을 극복하는 논리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湖洛의 논쟁은 人物性同異論뿐만 아니라 聖凡心同不同論 明德分數有無論으로 논쟁점을 확대시키면서 가열되는데, 重商學派의 기수는 洛論인 인물동성론을 계승한 洪大容(1731~1783)이나 朴趾源(1737~1805) 등이었다.⁷⁾

이들은 經世致用學派에 이어 실학의 제2기를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燕行에 동행하여 당시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여 눈부신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淸朝의 燕京에서 적지 않은 자극을 받고, 기술이나 상업을 천시하여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했던 조선에 과학지식이나 農工技藝의 발전을 촉구한다. 燕巖의 熱河日記나 楚亭朴齊家(1750~1805)의 北學議는 燕行의 경험으로 얻은 利用厚生의念을 담은 저작이라 할 것이다.

이런 실학사상은 분명히 성리학의 폐단이었던 空理空論性을 비판하며 대두되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이 갖는 신분 혹은 의식 등은 儒學과 분리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사실 經世致用의 學이란 것도 실은 君子學이요, 君子學이란 다름아닌 儒學인 것이다. 실학이 改新儒學이라는 이야기도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실학이 성리학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점은 인정한다 하더

7) 鄭玉子, 실학과 근대의식,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183면.

라도 결국은 그 사상의 뿌리가 儒學에 닿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국문학에 대한 실학의 영향을 논함에 있어서도 이 점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Ⅲ. 朝鮮後期 國文學과 實學者들의 文學

1. 朝鮮後期 國文學

조선후기 국문학의 양상을 간단히 언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본고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큰 특징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散文의 隆盛’을 조선후기 국문학의 큰 특징의 하나로 들 수 있겠다. 小說의 발달이라든가 歌辭의 長篇化는 이런 경향의 구체적인 예가 된다.

淸朝로부터 유입된 소설의 영향을 입고 소설문학은 크게 융성하였다. 艷情·軍談·家庭·道德·寓話·怪談小說 등 그 종류도 다양하며, 중국소설의 翻譯·翻案物도 적지 않게 나왔다. 또 장편의 歌辭가 속출한 것도 당시 산문화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金仁謙의 <日東壯遊歌>나 洪淳學의 <燕行歌>등은 그 대표적 작품이다.

또하나 조선후기 국문학의 큰 특징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感情의 자유로운 表出’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壬亂 직전까지 생존한 退溪(1501~1570)는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애하여 말하기에 족하지 못하다”⁸⁾ 고 하였는데, 당시(朝鮮前期) 우리 詩歌가 “多淫哇”했다고 해도 퇴계와 같은 性理學者의 관념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작품이 많이 陽性化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와서는 남녀의 자연스런 애정표현은 말할 것도 없이 조선초기의 도학자들이 고려의 노래를 두고 “男女相悅之詞”라고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노골적인 肉談까지 作品으로 표출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

드립더 보득안으니 세허리지 주늑주늑
紅裳을 거두치니 雪膚之豊肥하고

8) “吾東方歌曲 大抵 語多淫哇不足言”(李滉, 陶山十二曲 跋文)

舉脚踏坐키니 半開한 紅牡丹이 發郁於春風이로다

進進코 又退退키니 茂林山中에 水春聲인가 키노라(時全937, 靑珍519)

소위 사실시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남녀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高麗詩歌에서 보는 것보다 몇 배나 더한 男女相悅의 노래가 아닐 수 없는데, 조선후기에는 이런 類의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조선후기 국문학의 이런 경향은 支配階層을 이루고 있던 性理學者들의 힘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被支配階層의 힘이 강화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文以載道’를 강조했던 지배층에 대한 반발이요, 억눌렸던 감정의 분출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文은 道를 실어나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効用的 價值觀에서 즐기는 것이라는 遊戲的 價值觀으로 크게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抽象的 개념을 압축시킨 詩中心의 文學에서 자질구레한 재미를 주는 小說文學에로의 편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후기에 성행한 탈춤은 양반에 대한 불신·불만이 感情抑制가 아닌 感情表出의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가 극성을 이룬다. 양반탈춤 제6과장의 서두 부분을 한 예로 들어본다.

말뚝이 : 양반 나오신다아 !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소론(少論)·호조(戶曹)·병조(兵曹)·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찰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요.

양반들 : 아야, 이놈 뭐야아 !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소론·호조·병조·옥당을 다 지내고 퇴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생원이야라네. (긋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⁹⁾

9)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弘盛社, 1979, 101~2면에서 재인용.

이런 식의 대사가 정확히 어느 시기에 형성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후기 양반들의 권위가 하층계급민들에 의해서 형편없이 유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록 비꼬는 투가 있으나 燕巖이 「兩班傳」에서 “兩班者，士族之尊稱也。旌善之郡，有一兩班 賢而好讀書”라고 허두를 꺼낸 것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선후기 국문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자를 알 수 없는 많은 소설작품들, 혹은 중인 이하 천민들에 의해 주도된 詩歌文學이거나 口碑文學이 先覺의 사대부들에 의해 주창된 實學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졌느냐 하는 점이다. 위에서 든 예와 같이 高麗 詩歌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더한 男女相悅之詞의 출현에 실학이 어느 정도 영향하였을 것인가? 아니면 소설의 흥성과 실학은 얼마만한 관계를 지닐까? 아무래도 실학사상이 가장 많이 융해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실학자들 자신의 문학작품이나 문학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實學者들의 文學

조선후기의 경직화된 제반 체제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것은 실학자들의 공통적인 태도라고 할지라도, 개혁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俗儒들의 문학하는 태도에 대하여 대체로 비판적인 실학자들도 문학에 대한 각자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실학의 선두주자였던 李瀾은 당쟁만을 일삼는 집권층을 비판하는 데 漢詩를 그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의 조카요 후계자인 李用休는 “惟說職所管 是爲眞文章”¹⁾이라 하여 자기가 맡은 바의 일에 관한 글이 참다운 文章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문인이 글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두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필 수 있다. 또, 李瀾이 科擧에 필요한 詩賦 혹은 表箋을 ‘문장의

10) 申光洙가 漣川에 원님으로 부임할 때 李用休가 지어준 〈送申使君光洙之任漣川〉의 일부분.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3)』의 192면에서 재인용.

마귀'라고 한 점에 비취 이용휴의 아들 李家煥(1742~1801)이 科詩로 명성을 높인 것은 각자의 문학하는 태도가 각양각색임을 느끼게 한다.

한편, 『熱河日記』에 실린 9편의 '傳'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現實批判意識의 표출을 위해 燕巖은 小說樣式을 빌었다. 여기에 반하여 後四家의 1인으로 이름을 날린 李德懋(1741~1793)는 「士小節」을 지어 선비로서의 마음가짐을 엄히 하라고 했으며, 소설 따위는 배격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經世致用學의 집대성자라 할 수 있는 茶山 丁若鏞(1762~1836)도 正祖의 文體反正에 동조하여 稗官雜書 小說類를 배격하였다. 물론 연암 자신도 文風을 어지럽힌다는 正祖의 나무람에 不平之氣로 以文爲戲의 장난을 했기에 반성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주위의 환경도 감안해야 하겠으나, 실학자들이 문학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취했음을 부인할 수 없겠다.

어떤 양식의 글이건 어떤 방법의 표출이건 실학자들의 문학작품이나 문학에 대한 태도표명의 글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공통점은 현실에 대한 批判意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복되거니와 星湖는, 현실적 가치가 없는 詩賦나 表箋에만 오로지 힘써 급제에 현안이 되고, 급제가 되면 우쭐대며 백성들을 수탈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비루한 俗儒들에 강한 비판의 태도를 표명했다. 李用休가 <送申使君光洙之任漣川>에서 申光洙에게 吟風弄月을 말라고 부탁한 것이나, 楚亭 朴齊家가 科文이란 文章의 虛像이라고 비판한 것은 당시의 세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암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비판정신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兩班傳」에서 양반의 횡포를

窮士居鄉，猶能武斷，先耕隣牛，借耘里氓，孰敢慢我

라고 빈정댄 것이나, 「許生傳」에서 허생의 입을 빌어

朝鮮，舟不通外國，車不行域中，百物，生于其中，消于其中

이라고 우물안의 개구리식인 조선을 개탄한 것 등등은 모두 그의 강한 現實批判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농민들의 참상을 다룬 朴齊家(1750~1805)의 <愁州客詞> 79수, 丁若鏞의

〈古詩二十七首〉, 혹은 李學遠(1770~1834)의 〈己庚紀事〉 등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또하나 실학자들의 문학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것에 대한 자각이라는 점이다.

星湖는 〈海東樂府〉 119수를 통해 역사를 회고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동악부〉를 보완하겠다고 한 安鼎福(1712~1791)은 〈觀東史有感效樂府體五章〉에서 주체적 의지로 전란의 주요한 고비를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洪大容은 地轉說로,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모든 가치 척도의 기준이라는 華夷論을 부정하는 튼튼한 근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西浦처럼 우리말 노래의 가치를 인식했다. 그 구체적 예가 국문본인 〈乙丙燕行錄〉이다. 柳得恭(1749~?)은 〈渤海考〉를 엮어 민족사를 재조명했다. 더우기 단군조선에서 고려까지 도읍한 곳 21군대를 읊은 〈二十一都懷古詩〉는 실학자다운 歷史認識의 작품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丁若鏞(1762~1836)이 “나는 조선사람이어서 조선시를 즐겨 짓는다”¹¹⁾ 고한 것도 일종의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이다. 實事求是學派의 대표적 학자인 金正喜(1789~1858)가 그 필법을 중국의 대가에 의지하지 않고 독특한 필체를 창안한 것이라든가 국문편지를 즐겨 쓴 것 등도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이 바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시 그가 詩에서 ‘性靈論’을 논하면서 시를 평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기준으로남의 개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데서도 주체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柳僖(1773~1837)가 「諺文志」에서 국문을 한문보다 폄시하는 시각에 대하여 비판한 것은 국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실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역시 한학자들이었다. 周知하고 있는 燕巖의 작품은 물론, 星湖가 역사를 회고하여 읊은 〈海東樂府〉 119수나 집권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타낸 漢詩, 혹은 楚亭이 관가의 가렴주구를 읊은 〈愁州客詞〉 79수나 淸의 문명을 예찬한 〈燕京雜絕〉 140수 등이 모두 漢文作品이다. 委巷詩人들에 큰 영향을 준 秋史

11)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214면에서 재인용.

의 性靈論도 漢詩에 대한 견해이며, 그의 李學逵(1770~1834)나 李圭景(1788~?), 崔漢綺(1803~1877) 등의 실학자들의 주된 문학작품이란 것도 역시 漢詩나 樂府 등이었다.

실학자들은 분명 개혁의 의지를 가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대적·신분적, 또는 개개인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IV. 結 論

실학사상과 조선후기의 국문학과와의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겠다. 일정한 시대 속에서 한 민족이 엮어내는 제반의 사회적 현상이 서로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선후기 국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모두 실학사상이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다.

兩亂으로 피폐해진 조선후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일어난 변혁의 기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하나는 피지배계층의 지배계층에 대한 거부 의 움직임이요, 하나는 지배계층 내에서의 自省의 소리이다.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이 모두 국문학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국문학에 관한 모든 현상을 막연히 實學만으로 해명코자 하는 것은 實學이나 國文學 모두를 誤導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實學’이라는 것의 개념은 광범위하지만, 조선후기의 실학은 당해 실학자들이 지칭한 바에 따라 經世致用學派, 利用厚生學派, 實事求是學派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피지배계층에서 갖는 현실비판의 시각과는 또 다른 측면의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실학자들 자신도 오랜 유교적 전통 속의 존재들이고, 실지 유교적 윤리를 통채로 부정한 실학자들은 없었다. 단지 유교적 윤리 이면의 表裏不同한 二重性을 꼬집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국문학이 그 이전에 비해 形式上 散文이 크게 隆盛하고, 内容上 感情이 자유롭게 表出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작품이나 국문학에 대한 태도를 볼 때, 그런 현상들을 실학의 영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추측에 의존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후기가 실학사상만으로 충만했다고는 할 수 없듯이, 國文學史上的 諸現象도 반드시 실학의

영향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 예시한 장시조 “드립더…”의 경우를 보자. 이 작품은 金天澤(1687~1758)이 靑丘永言에서 ‘蔓橫淸類’로 분류한 작품인데, 靑丘永言(珍本)이 출간된 해인 1728년에 南坡는 ‘蔓橫淸類序’에서 “蔓橫淸類 辭語淫哇 意之寒陋 不足爲法 然其流來也已久 不可以一時廢棄 故特題于下方”이라 하였으니 음애한 내용의 노래가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토로하고도 있거니와 그런 음애한 내용의 노래가 음성적으로 불리어지느냐 양성적으로 불리어지느냐 하는 시대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시대에건 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실학의 영향을 기다려 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남녀의 愛慾이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있는 松江과 玉伊 혹은 林梯와 寒雨의 和答歌가 실학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실학이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났듯이 이런 류의 노래가 크게 양성화한 것도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이 그런 노래의 양성화를 가능케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散文化의 경향도 그렇다. 무엇보다 크게 실학사상이 수용되었으리라 짐작되는 실학자들 자신의 문학작품이나 문학에 대한 태도를 봐도, 소설에다 자신의 의식을 담아놓은 실학자가 있는가 하면, 소설을 배척한 실학자도 있었다.

조선후기의 時代相을 고려해 볼 때, 실학의 발생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배계층 내부에서 일어난 개혁의 목소리였다. 같은 시대에 일어난 하층계급의 움직임을 이런 상층계급에서 주도된 실학의 영향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가령 無知한 백성들이 똑같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학사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학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선후기에 일어나는 국문학에 관한 여러 특징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실마리를 모두 實學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소략한 문제제기의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보다 세심한 고찰로 국문학이나 실학 자체 혹은 양자의 관계가 오도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65.

李佑成, 實學派의 文學, 국어국문학 16호, 국어국문학회, 1957.

李乙浩 編, 實學論叢, 全南大學校 出版部, 1983(再版).

鄭玉子, 실학과 근대의식,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179
~194면.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弘盛社, 1979(再版).

——,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5(3판).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求堂, 1974(改訂3판).

千寬宇, 韓國實學思想史, 韓國文化史大系 VI,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70.

최철 외 編, 朝鮮朝 後期文學과 實學思想, 정음사, 1987.

韓祐勛, 李朝實學의 概念에 대하여, 震檀學報 19호, 震檀學會, 1958, 25
~46면.